

保健教育·健康増進學會誌 第17卷 2號(2000. 9)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17, No.2(2000)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환경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과의 관련요인 분석

장 영 미

서울대학교 국민보건연구소

〈 목 차 〉

I. 서 론	V. 연구결과 고찰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VI. 연구결과 및 요약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연구결과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학교환경에서의 생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건강하고 학교생활을 보내는 것은 학업수행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심리적 환경과 신체적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압감,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편감, 실패를

경험했을 때의 정서적 긴장 등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체의 생리적, 심리적 및 행동의 반응 특징이 수반되며(Roth 등, 1989),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정도가 심하거나 빈도가 높을 때 다양한 질병 발생과도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Fiedman, Booth-Kewley, 1987). 특히 학교생활에서의 만족과 건강한 경험은 학생들의 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Johnson, Johnson, 1993).

그러나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는 스트레스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종각, 1996, p187; Tolar, 1975; 설기문, 1997, p26)과 「학교가 환자를 만드는가」(Wandel, 1994), 「학교 스트레스」(한준상, 1995)라는 책이 나오고 있다. 이미

1970년대에 Silberman은 「교실의 위기(Crisis in the Classroom)」라는 저서에서 학교의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학교환경은 학생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학교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증상은 어떠한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고찰하면 학교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수준을 측정할 것이 별로 없었고, 일반적인 건강수준에 단편적인 관련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 모형이 주를 이루어,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환경특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 수준을 측정할 때에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요인들을 통합하여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차원적, 복합적 분석 모형이 필요하다(이성진, 1996, p161; 김형태, 1999, p234-235, 399-401).

2. 연구 목적

2-1. 궁극적 목적

청소년이 학교에서 주로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환경요인들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교육환경 개선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2. 구체적 목적

첫째,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건강수준(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환경 및 기타 건강관련 환경(개인·가정·사회·환경)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건강수준과 학교환경 및 기타 건강관련 환경 특성을 파악한다.

넷째,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 증상과 관련된 학교환경 요인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기의 건강

청소년층은 다른 연령층에서 보다 질병률과 사망률이 낮으므로(WHO, 1993, p14)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연구는 다소 소홀하여 왔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리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신체적인 측면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청소년의 신체적 증상은 굴절된 심적 에너지의 보상이며 전환 증세이고, 질병에로의 도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세는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권이중, 1996, p512).

즉, 청소년기의 정신적 요소로서 불안감은 신체적인 것이 동반되어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맥박이 빠르다고 호소하고 금방 심장병에 걸리는 것처럼 공포를 일으키기도 한다. 신경성 두통, 요통, 흉부통과 같은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궤양, 대장염, 위산과다, 두드러기, 편두통, 천식, 식욕부진, 신경과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권이중, 1996, p172).

학교공포증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학교에 대한 불안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 증세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체로 불쾌감, 두통, 위통, 복통,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림, 불면증 등을 신체적 증상의 예로 들

수 있다(Wandel, 1994, p28-29). 직접적으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 이 증상은 대개 아침에 나타났다가 학교에 가지 않고 등교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학교에 가면 보건실을 찾는 비율이 높고, 집에 가고 싶어서 갖은 수단을 쓰고 있는 학생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상의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조퇴시키는 경우가 많다(McAnanly, 1986).

무력감의 증세는 뚜렷한 신체적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증세를 비롯해서 식욕부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등의 증세가 포함된다(Wandel, 1994, p38). 부정적인 정서(우울, 불안, 분노, 적개심)의 경험은 다양한 질병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riedman, Booth-Kewley, 1987; Watson, Pennebaker, 1989; Patterson, Seligman, Vaillant, 1988; Patterson, 1988).

청소년기는 정서적 불안정이나 기타 적응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고(WHO, 1993, p52-53; 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p183; 조두영, 1998), 이 시기의 정신적 문제점은 성인기의 정신적인 문제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을 한다면 만성정신질환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성인기의 정신적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WHO, 1993, p53; Kasen 등, 1999) 또한 청소년기 이전에 잠재해 있던 정서적 패턴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Garrick 등, 1988; Woolston 등, 1989) 청소년기 이전에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다(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8, p415).

2. 청소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일반적으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건강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청소년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문제는 환경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각 환경요인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조은숙, 1992, p155)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사건들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발병 원인이 된다. 이 사소한 사건은 아주 가벼운 성가신 일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매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건은 우울증이나 심리적 증후를 유발하는데(Kanner 등, 1981), 큰 사건보다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한다(Weinberg 등, 1987).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환경 요인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업성취 문제, 생활태도, 건강증진 생활습관 문제 등 개인환경에서 정신적인 불안정을 야기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각종 문제와 스트레스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온다(Cox, 1995, p28-29). 그러나 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 스트레스 원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이현수, 1997, p145-153; Peterson, Hamburg, 1986).

학교생활태도나 일상생활태도에서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또래 집단에게 배척 당하거나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됨으로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에서 부적응 양상이 나타나며, 비행으로까지 이어지는 악화 양상을 보인다(Patterson, DeBaryshe, Ramsey, 1989;

Loeber, 1982; Fergusson, Lynskey, 1998; Taylor 등, 1996). 만일 이러한 변수를 배제한 상태로 학교환경과 학업성취도나 건강과의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면 학교환경만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환경 변수를 통합시켜서 관련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증진 생활습관은 개인이 선택한 행위로서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 건강증진행위는 적절한 안녕, 개인적 충만감, 생산적인 삶을 지향하는 인간실현 경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생활습관을 밝히고자 지금까지 많은 역학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개인이 건강증진 생활습관을 가짐으로써 안녕을 유지·증진하고 건강상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질병의 조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Pender, 1996, p163). 성격형성에 습관이 지닌 역할은 크다. 습관은 아동기보다도 유아기에서 더욱 중요하다. 식사, 수면, 배변, 옷입기, 청결에 대한 기본 습관은 유아기에 형성되는 것이고 이런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자기의 생활 조건을 점차로 확대 확립할 뿐더러 독립성을 획득하여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을 더욱 갖게 한다. 이것은 훗날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습관은 행동방식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사고 방식, 정서 생활에도 미치게 되며 그 영역은 확대된다.(진용일, 1993, p323)

둘째, 학교, 가정, 사회 등의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4, p83). 인간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습하면서 성장발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환경을 교육환경이라고 한다(민영순, 1978; 이상섭, 1991; 권이중, 1996). 청소년들이 접하는 외적인 환경은 긴장 적응 해결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

이다. 따라서 교육병리 현상을 논할 때 이 환경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윤종래, 1993)

학교환경 문제는 정학, 퇴학(Cohen 등, 1987; Dubois 등, 1992), 학급에서의 좋지 못한 교우의 존재(박연호, 1989, p91-92), 학교풍토(권이중, 1996; Comer, 1993; 김형태, 1997, p236), 학급풍토(서봉연, 이순형, 1983, p425), 학교의 물리적 환경 및 사회심리적 환경(문선모, 1977), 학교생활만족도(Epstein, McPartland, 1976; 김경숙 등, 1994), 교과학습 상황(문선모, 1977), 학력 경쟁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열악한 학교교육 환경, 과밀학급으로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감과 효율적인 상담 결핍, 획일적인 교수방법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동기나 흥미를 상실, 학생들의 참여 기회 결핍, 학교생활지도 활동 미흡(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4, p83-90) 등과 관련되어 있고, 가정환경 문제는 부모와의 논쟁(Cohen 등, 1987; Dubois 등, 1992),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Conger 등, 1992; WHO, 1993), 가족관계의 어려움(정기숙, 1993), 가족기능도(원진숙 등, 1994; 김경숙 등, 1994; 하종성 등, 1993; House 등, 1988),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Purkey, 1970; Marta, 1997), 부모와의 관계(정현숙, 정문자, 1995; 김형태, 1999, p231; Long, 1986; Mechanic, 1989; Avison, McAlpin, 1992), 부모의 양육태도(황해정, 1997), 가족의 붕괴, 부모의 거부 등의 심한 상실 경험(WHO, 1993)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환경 문제는 방과후에 학교 밖에서 절친한 친구와의 친밀감의 수준과 친구관계의 질, 어울리는 행위방식(박연호, 1989, p91-92), 절친한 친구와의 대인관계(윤진, 최정훈, 1989; 박성숙, 1992), 친구와의 이별(Cohen 등, 1987; Dubois 등, 1992), 이성문제(윤진, 최정훈, 1989) 등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

셋째, 청소년기의 건강은 일상생활에서의 인간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에는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사, 또래친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8, p412). 건강과 질병은 의미 있고 친밀한 타인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인환경은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증진·회복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House 등, 1988; Cohen, Wills, 1985; House, 1981).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임의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14개 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4개 학교를 지역별 학교 수에 비례하여 선정하였고, 학년별로 전공이 다른 2개 반, 1학년, 2학년 남녀 학생으로 총 3,060명이었다.

2. 조사방법

인문계 고등학교 2개 학교를 선정하여 1998년 11월 10일에서 11월 16일까지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1개 학교 4학급은 직접 본인이 학급에 들어가서 설문내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4차례의 수정을 통해서 설문 도구를 검증하였고, 최종적으로 구조화한 설문지를 본 논문의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11월 25일부터 1998년 12월 13일까지로 교사-학생간의 층분

한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고 마감하는 시점을 택하였다.(조사시점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1999년 3월말에서 4월초에 2개 학교 1, 2학년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미 학기말의 수집한 자료와 비교하여 신뢰도를 재평가한 후 학년말에 수집된 자료를 최종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 도구의 내용으로는 연구 개념틀<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의 총 신뢰도는 Chronbach' α =0.9535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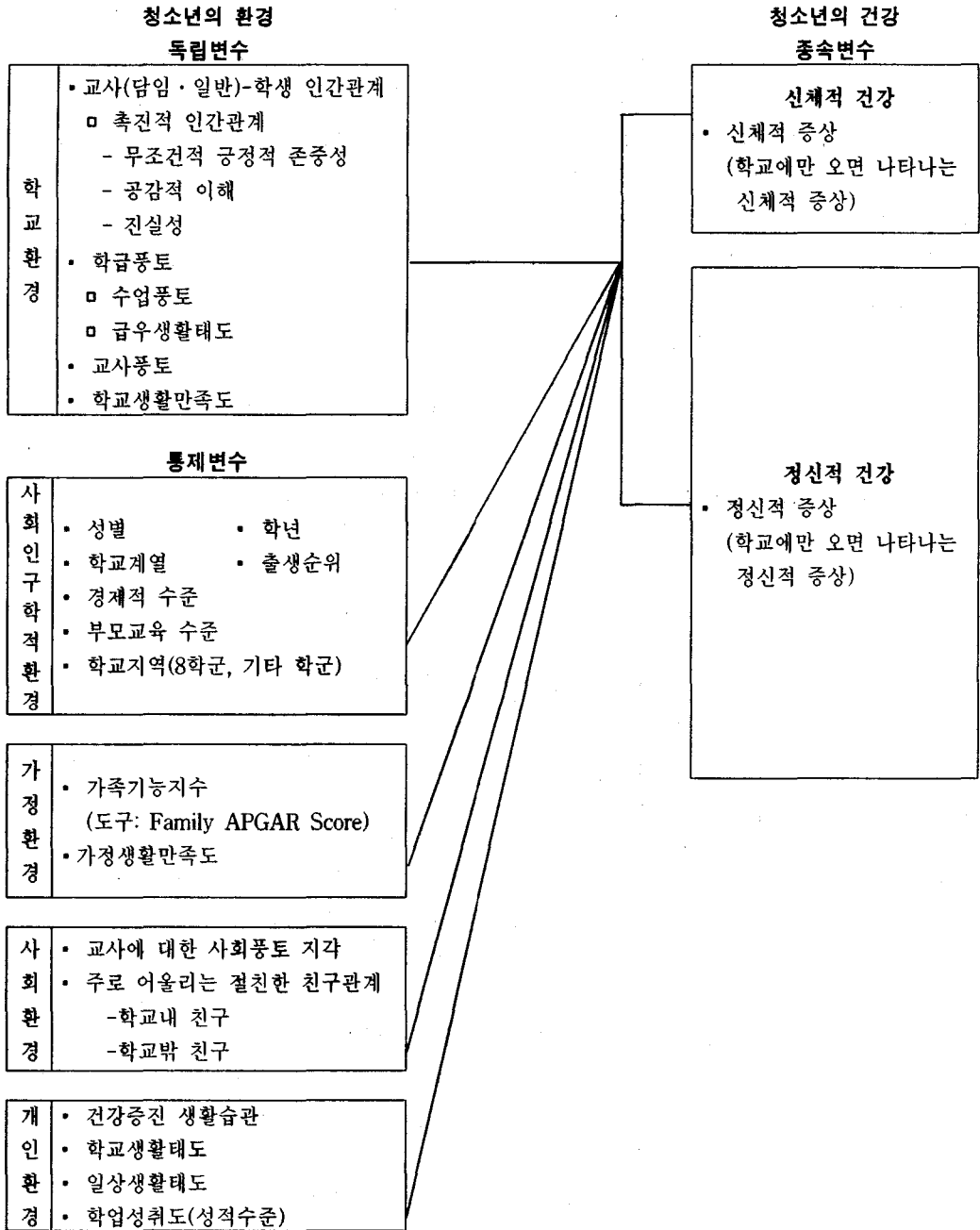
1) 개인적 환경

(1) 학업성취도 : 자신의 성적에 대한 지각 수준(성적이 잘 나오는 정도)으로 구성하였다.

(2) 학교생활태도 : 학교생활태도는 학생의 학교 부적응을 진단하고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를 측정하기 위한 Sutter-Eyberg Students Behavior Inventory(SESBI)의 수정판(SESBI-R)(Rayfield Eyberg, Foote, 1998, p88-98)과 EMMER(Emmer, 1973)의 수업에 부주의한 행동 지표를 참고로 하여 보완하였다(김병성, 1997, p248-253). 수업시 주의집중력 평가 도구 5 문항 첨가하고, 학업에 대한 준비성을 3 문항 포함시켜 20명의 현직 교사에게 문항의 타당성을 논의한 뒤에 수정보완 하여 총 42 문항을 구성하였다.

(3) 일상생활태도 : 일상적인 삶(가출, 자살, 학업포기 등)에 대한 태도 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건강증진 생활습관 : 미국의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의해서 개



〈그림 1〉 연구의 개념틀

발된 YRBSS(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Kann 등, 1993)와 한국인 보건의식 행태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남정자, 조맹제, 최은진, 1995)의 자료를 고찰하여 건강증진 건강습관(Health Promoting Lifestyle)에는 스트레스 관리, 운동, 식이, 수면, 구강보건, 개인위생(손씻기, 속옷위생), 안전(교통규칙)준수 등을 내용으로 22 문항을 구성하였다.

2) 가정환경

(1) 가족기능지수 : Smilkstein(1978, 1980, 1982)이 고안한 가족기능도지수 [Family APGAR Score: 애정성(Affection), 협력성(Partnership), 성장성(Growth), 적응성(Adaptation), 해결성(Resolution)] 5 문항을 사용하였다.

(2) 가정생활 만족도 : 문형춘, 김정옥(1996)의 연구 도구를 참고로 하여 가정에서의 가정 분위기(2문항), 교육투자 및 금전적인 지원(4 문항) 등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가정의 물리적 환경(1문항)에 대한 만족도를 문항으로 구조화시켰다.

3) 학교환경

(1) 교사-학생간의 촉진적 인간관계 : Rogers의 상담장면에서의 인간관계(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한 관계)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이희용, 1997; 이상노, 1968)을 통해서 교사-학생 인간관계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담임교사·일반교사-학생간의 촉진적 관계를 측정하는 20 문항을 구성하였다.

(2) 학습풍토(학급환경)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5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습환경의 지각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LEI (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을 사용하여

대표적인 문항 15개로 구성하였다(오성삼, 구병두, 신기명, 1996, p228-250).

(3) 학교구성원간의 관계도 : 교사간의 화목, 협조성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 수준으로 2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학교생활 만족도 : 문형춘, 김정옥(1996)의 연구도와 Epstein, McPartland(1970)의 Quality of School Life Scale(QSL)을 참고로 하여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급, 학교의 분위기(3 문항), 생활지도(교복, 규율지도, 상담) 물리적 환경(15 문항)에 대한 만족도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민경석(1997), 김윤진(1997), 최미란(1998)의 도구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4) 사회적 환경

(1) 교사에 대한 인식 : 교사-학생 인간관계는 학생 주변에서 교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사에 대한 인식, 또래집단에서 바라보는 인식을 5 문항으로 구조화시켰다.(노희정, 1991; 김신일, 1995)

(2) 교우관계-절친한 친구: 교내·외 교우관계 척도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의사소통, 이해도, 존중도, 친밀도 수준을 파악하도록 1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신체적·정신적 건강 : 문헌고찰(조수철, 1991; 김문주, 1991; 이현수, 1997, p145-153; Wandel, 1994; Spence, 1998, p71)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학교에 오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7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분석 방법

연구분석 방법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actor Analysis를 실시하고, 변수군집의 신뢰도를 검증 및 부하량에서 0.3 이하의 문제가 있는 문항은 제외시킨 후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환경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 증상과의 관계성 및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성별, 학년, 학교계열, 학군 및 기타 사회인구학적 변수군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X^2 -test, Factor Analysis를 통하여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직교회전 방식과 1요인 주성분분석 방식을 반복 검증한 것을 바탕으로 최종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문항들의 긍정·부정의 성향을 통일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5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recoding한 후 변수군집별 통계 분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건강관련 환경요인

1) 사회인구학적 환경

<표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는 총 3,060명으로, 남학생이 1,517명(49.6%), 여학생은 1,543명(50.4%), 1학년은 1,508명(49.3%), 2학년은 1,552명(50.7%)이었다. 인문계는 2,355명(77.0%)으로 전공별로는 문과 1,267명(53.8%), 이과 911명(38.7%), 예·체능계 129명(5.5%)이었고,

실업계는 705명(23.0%)였다. 인문계 학교의 학군을 강남의 8학군과 기타 학군으로 나누어 볼 때 8학군은 693명으로 29.4%, 기타학군은 1,662명으로 70.6%였다.

출생순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첫째가 39.7%, 가운데가 8.6%, 막내가 45.8%, 외동이 6.9%였다. 막내 다음으로 출생순위 첫째의 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매우)조들린다가 18.9%, 먹고살 정도가 53.1% 먹고살기에 (아주)넉넉하다가 27.4%이고, 주거 상황에서는 자기 집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28.3%, 전문관리직 13.4%, 서비스직 14.2%, 생산기술직 11.8% 순으로 많았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1.9%, 대학교 졸업 이상 33.9% 순으로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7.0%, 대학교 졸업 이상 17.6%, 중학교 졸업이 19.7% 순으로 많았다.

담임교사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선생님이 60.3%, 여자선생님이 39.7%였으며, 인문계 학교의 학군을 강남의 8학군과 기타 학군으로 나누어 볼 때 8학군은 693명으로 29.4%, 기타학군은 1,662명으로 70.6%였다.

2) 학교환경 및 기타 건강관련 환경요인

<표 1-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각 환경 변수군집의 평균±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가정환경, 사회환경, 개인환경은 2.5158±0.6365, 2.5365±0.4569, 2.6722±0.4360으로 5점 척도의 중간값인 3 이하로 나타났으나 학교환경은 3.1093±0.3858로 중간값 3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환경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 환경 변수들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1-1〉 사회 인구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명(3,060명)	%	특 성	구 분	명(3,060명)	%
성 별	남	1517	49.6	학 년	1학년	1508	49.3
	여	1543	50.4		2학년	1552	50.7
전공별	인문계	2355	77.0	제2외국어	불 어	1192	39.0
	문과	1267	53.8		독 어	450	14.7
	이과	911	38.7		기 타	1410	46.1
	예·체능계	129	5.5		무응답	8	0.3
	실업계	705	23.0				
	무응답	48	2.0				
출생 순위	첫째	1159	37.9	경제수준	매우 조들림	90	2.9
	가운데	264	8.6		약간 조들림	491	16.0
	막내	1402	45.8		먹고살 정도	1624	53.1
	외동	211	6.9		먹고살기에 넉넉함	797	26.0
	무응답	24	1.0		아주 넉넉함	43	1.4
			무응답		15	0.5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411	13.4	부의 학력	국졸 이하	102	3.3
	사무직	867	28.3		중학교 졸업	302	9.9
	생산기술직	360	11.8		고등학교 졸업	1587	51.9
	서비스직	436	14.2		대학교 졸업 이상	1037	33.9
	숙박, 음식점, 이·미용업 등				무응답	32	1.0
	직접 경영	291	9.5				
	상업	254	8.3	모의 학력	국졸 이하	147	4.8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등	20	0.7		중학교 졸업	603	19.7
	단순노무직	83	2.7		고등학교 졸업	1743	57.0
	무직	94	3.1		대학교 졸업 이상	539	17.6
	무응답	171	5.6		무응답	28	0.8
거주 형태	부모님, 가족이			주거상황	자기집	1826	59.7
	함께 거주	2969	97.0		전세	949	31.0
	친척집에 거주	29	0.9		월세	146	4.8
	형제 자매와만				임대형 아파트	77	2.5
	함께 거주	24	0.8		기타	11	0.4
	하숙 및 자취	10	0.3		무응답	48	1.6
	기타	28	0.9				
담임교사	남	1844	60.3	학군	기타학군	1662	70.6
성별	녀	1216	39.7		8학군	693	29.4

〈표 1-2〉 연구변수의 평균±표준편차

측정변수		평균±표준편차	측정변수		평균±표준편차
종속변수	학교에만 오면 나타나는 증상	2.0823±0.6040	독립변수	가정환경	2.5158±0.6365
	신체적 증상	1.9555±0.1020		가족기능지수	2.7701±0.8708
	정신적 증상	2.3993±0.1185		가정생활 만족도	2.6073±0.6732
독립변수	학교환경	3.1093±0.3858		사회적 환경	2.5365±0.4569
	교사-학생 촉진적 인간관계	2.8215±0.5637		교사에 대한 사회풍토 지각	3.1003±0.6225
	학급풍토 · 수업풍토	3.1845±0.4921		주로 어울리는(절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2.4049±0.6892
· 급우생활태도		3.1280±0.4502		개인적 환경	2.6722±0.4360
수	교사풍토	3.1750±0.8881		건강증진생활습관	2.7935±0.5197
	학교생활 만족도	3.2901±0.5163		학교생활태도	2.5698±0.5508

2. 건강수준

학교에만 오면 나타나는 증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는 2.0823±0.6040이고,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을 나누어 살펴보면 평균±표준

편차는 1.9555±0.1020, 2.3993±0.1185로 정신적 증상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표 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 오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으로는 요통, 소화불량 및 복통, 19.0%, 13.6%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현기증, 두통은 7.9%, 7.5%, 7.4%로

〈표 2-1〉 학교에만 오면 나타나는 증상

총 3060 명(%)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표준편차	X ² -test			
							남녀	학년	학교 계열	
신체적	두통이 생긴다	1488 (48.6)	763 (24.9)	583 (19.1)	170 (5.6)	56 (1.8)	1.8703±1.0233	***		
	소화불량, 복통	1311 (42.8)	662 (21.6)	671 (21.9)	289 (9.4)	127 (4.2)	2.1042±1.1784	***		
	허리가 아프다	1214 (39.7)	619 (20.2)	645 (21.1)	393 (12.8)	189 (6.2)	2.2562±1.2696	***		**
증상	현기증	1630 (53.3)	676 (22.1)	524 (17.1)	165 (5.4)	65 (2.1)	1.8101±1.0369	***		
	가슴이 두근거림	1692 (55.3)	710 (23.2)	478 (15.6)	132 (4.3)	48 (1.6)	1.7366±0.9766	***		
정신적 증상	마음이 답답함	1221 (39.9)	641 (20.9)	616 (20.1)	374 (12.2)	208 (6.8)	2.2507±1.2801	***		
	짜증스럽다	933 (30.5)	619 (20.2)	739 (24.2)	436 (14.2)	333 (10.9)	2.5480±1.3401	***		

* p<0.05 ** p<0.01 *** p<0.001(무응답 제외)

나타났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마음이 답답하다, 짜증스럽다가 19.0%, 25.1%로 나타났다<표 2-1>.

3.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특성

Factor Analysis를 통해서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ANOVA에서는 Duncan grouping($p < 0.05$)을 통해서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집단-집단으로 묶어서 차이를 제시할 때 좌측 집단은 평균 크기순 대로 해당 칸에 제시하였다<표 3-1>.

1)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수준

성별로는 교사-학생 축진적 인간관계, 학급풍토, 학교생활만족도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교계열(인문계, 실업계)별로는 학교생활만족도를 제외하고 학교환경 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급풍토에서 수업태도에 대한 지각($t=4.54, p < 0.001$)을 제외하고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출생순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군(8학군, 기타 학군)별로는 교사풍토,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8학군의 학생들이 더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경제수준별로는 학급풍토 등을 제외한 학교환경 변수군집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Duncan grouping($p < 0.05$)에서 (매우)쪼들린다고 한 경우와 매우 넉넉하다고 한 경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매우)쪼들린다고 한 경우에는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모 학력별로는 부친의 학력과 학교생활만족

도($p < 0.05$), 모친의 학력과 급우생활태도($p < 0.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적 수준별로는 학교환경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p < 0.001$)를 보이고 있었다. Duncan grouping($p < 0.05$)에서 성적이 (매우)잘 안나온다고 한 경우일수록 부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기타 환경수준

기타 건강관련 환경수준에서는 성별, 학교계열, 경제수준, 부모 학력, 성적수준별로 대체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표 3-1>.

3)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건강수준

X^2 -test linear association을 살펴본 결과(표 2-1)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에서 남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 학년별, 학교계열별로 학교에만 오면 나타나는 증상 군집에서 유의한 차이($p < 0.001$)를 보이고 있었다.(표 2-3)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Duncan grouping($p < 0.05$)에서 경제적으로 (매우)쪼들림, 성적이 (매우)잘 안나오에서 가장 부정적인 양상을 보였다<표 3-1>.

4.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환경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과의 관련요인 분석 (Multiple Regression)

회귀식에 기초한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먼저 검증하기 위해서 F값과 그의 유의수준을 살펴 보았다. 건강과 관련된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R^2=0.17, F=23.61; R^2=0.24; F=35.68; p < 0.001$) <표 4-1>.

〈표 3-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건강관련 환경요인 특성

구분	성별	학년		학교계열		학군		출생순위				경제수준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성적		
		1학 년	2학 년	1인 문	2실 업	1기 타학 군	28학 군	1첫 순	2가 내	3막 동	4외 동	1(매우) 조	2(매우) 미 정 도	3(매우) 낮 은 수 준	1대 졸	2중 졸	3중 졸	4국 졸 이 하	1대 졸 이 상	2고 졸	3중 졸	4국 졸 이 하	1(매우) 낮 은 수 준	2보 통	3(매우) 낮 은 수 준
		T p-value	T p-value	T p-value	T p-value	F값 p-value	DG	F값 p-value	DG	F값 p-value	DG	F값 p-value	DG	F값 p-value	DG	F값 p-value	DG	F값 p-value	DG	F값 p-value	DG	F값 p-value	DG	F값 p-value	DG
학교환경	교사-학생 인간관계	3.49 (0.000) ***	-1.67 (0.096)	0.12 (0.907)	1.86 (0.064)	4.0647 (0.069)		8.0559 (0.0003) ***	1-5 3-5	0.9781 (0.4021)		0.3242 (0.8079)		30.3289 (0.000) ***	5-1 5-3 3-1										
	학급 풍토 -급우생활 태도	4.63 (0.000) ***	-0.93 (0.351)	-0.68 (0.494)	-1.18 (0.239)	1.0542 (0.3675)		2.9752 (0.0513)		2.1992 (0.0862)		2.8653 (0.0354) *	1-2	9.1220 (0.0001) ***	1-2 3-2										
	-수업태도	4.82 (0.000) ***	1.60 (0.109)	4.54 (0.000) ***	-0.62 (0.537)	0.7183 (0.5410)		4.8785 (0.0077) **	1-3 2-3	1.5214 (0.2070)		1.0353 (0.3758)		50.6972 (0.000) ***	3-1 3-2 2-1										
	교사풍토	1.34 (0.182)	-2.00 (0.046) *	-4.27 (0.000) ***	2.93 (0.003) **	1.8374 (0.1383)		5.0580 (0.0064) **	1-3 1-2	2.4560 (0.0614)		1.2446 (0.2920)		6.5861 (0.0014) **	3-2 3-1										
	학교생활 만족도	3.35 (0.001) ***	-0.05 (0.959)	-0.81 (0.419)	9.36 (0.000) ***	1.0927 (0.3510)		11.1049 (0.0000) ***	1-3 1-2 2-3	2.8713 (0.0351) *	2-1	2.2603 (0.0796)		9.1594 (0.0001) ***	3-2 3-1										
가정환경	가족기능 지수	4.85 (0.000) ***	-1.37 (0.169)	-2.19 (0.029) *	0.74 (0.457)	1.8393 (0.1379)		38.6712 (0.0000) ***	1-3 1-2 2-3	3.5024 (0.0149) *	3-1	6.7480 (0.0002) **	4-1 4-2 3-1 2-1	17.5313 (0.0000) ***	3-1 3-2										
	가정생활 만족도	-2.33 (0.020) *	-0.61 (0.542)	-7.32 (0.000) ***	2.59 (0.010) **	3.4626 (0.0157) *	2-1 2-3	200.3411 (0.0000) ***	1-3 1-2 2-3	22.8729 (0.0000) ***	3-1 4-1 2-1	27.4520 (0.0000) ***	4-1 4-2 3-1 3-2 2-1	48.2273 (0.0000) ***	3-1 3-2 2-1										
사회환경	교사에대한 사회풍토 지각	2.68 (0.007) **	-1.91 (0.056)	-0.46 (0.643) *	-2.48 (0.015) *	1.1733 (0.3185)		5.0819 (0.0063) **	1-3 1-2	1.8069 (0.1438)		1.1551 (0.3256)		25.2430 (0.000) ***	3-1 3-2										
	주로 어울 리는철친한 친구관계	11.18 (0.000) ***	-0.36 (0.719)	-4.21 (0.000) ***	1.80 (0.071)	1.5920 (0.1893)		10.2014 (0.0000) ***	1-3 1-2 2-3	2.7230 (0.0429) *	3-1	6.3585 (0.0003) ***	3-2 3-1 4-2	2.0218 (0.1327)											
	-학교내 친구관계	10.49 (0.000) ***	1.57 (0.117)	-4.63 (0.000) ***	0.58 (0.563)	2.1496 (0.0921)		10.4674 (0.0000) ***	1-3 1-2 2-3	3.4888 (0.0152) *	4-1 4-2 3-1	6.4263 (0.0002) ***	4-2 4-1 3-2 3-1	3.1449 (0.0433) *	3-1 3-2										
	-학교밖 친구관계	8.76 (0.000) ***	-2.09 (0.036) *	-2.92 (0.003) **	2.48 (0.013) *	1.5779 (0.1927)		5.4555 (0.0043) **	1-3 1-2 2-3	1.1108 (0.3434)		3.4752 (0.0154) *	3-2 3-1	0.5131 (0.5987)											
개인환경	건강습관	-0.85 (0.398)	-0.79 (0.431)	-6.90 (0.000) ***	0.29 (0.774)	2.4165 (0.0647)		34.7837 (0.0000) ***	1-3 1-2 2-3	6.5276 (0.0002) ***	3-1 4-1 2-1	6.3490 (0.0003) ***	4-1 4-2 3-1 4-2	47.6856 (0.0000) ***	3-1 3-2 2-1										
	학교생활 태도	7.05 (0.000) ***	1.10 (0.270)	-2.96 (0.003) **	1.74 (0.083)	5.9974 (0.0005) ***	4-1 3-1	16.1863 (0.0000) ***	1-3 1-2 2-3	0.1562 (0.9257)		0.1113 (0.9535)		39.2410 (0.0000) ***	3-1 3-2 2-1										
	일상생활 태도	-1.72 (0.085)	-1.61 (0.103)	-4.86 (0.000) ***	-1.92 (0.056)	1.1123 (0.3428)		33.0179 (0.0000) ***	1-3 1-2 2-3	1.6541 (0.1749)		2.7359 (0.0422) *	3-1 2-1	109.5347 (0.0000) ***	3-1 3-2 2-1										
건강	학교에만 오면 증상	-10.75 (0.000) ***	-0.33 (0.745)	-0.09 (0.931)	0.02 (0.982)	1.8530 (0.1355)		15.6140 (0.0000) ***	1-3 1-2 2-3	0.2272 (0.8775)		0.1373 (0.9378)		29.0761 (0.0000) ***	3-1 3-2 2-1										
	-신체적 증상	-11.74 (0.000) ***	-0.30 (0.765)	-0.25 (0.800)	-0.06 (0.949)	1.4831 (0.2172)		11.7279 (0.0000) ***	1-5 1-3	0.2243 (0.8795)		0.1039 (0.9578)		20.1173 (0.0000) ***	5-1 5-3 3-1										
	-정신적 증상	-6.04 (0.000) ***	-0.30 (0.765)	-0.81 (0.416)	0.17 (0.864)	2.3927 (0.0668)		17.3682 (0.0000) ***	1-5 1-3 3-5	0.2150 (0.8860)		0.4601 (0.7102)		36.6166 (0.0000) ***	5-1 5-3										

* p<0.05 ** p<0.01 *** p<0.001 Duncan Grouping(p<0.05) =DG(무응답 제외)

1) 학교에만 오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표준화된 β 값을 비교해 본 결과<표 4-1>, 여학생의 경우($p<0.001$), 개인환경인 학교생활태도, 일상생활태도가 부정적일수록($p<0.001$) 순으로 내적 환경요인이 가장 높은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외적환경으로는 교사-학생 촉진적 인간관계 지각이 부정적일수록($p<0.001$), 경제수준이 좋지 않을수록($p<0.001$), 수업풍토 지각이 부정적일수록($p<0.01$),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p<0.05$) 등의 순으로 학교에만 오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환경, 가정환경, 사회환경, 성적수준 등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2) 학교에만 오면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표준화된 β 값을 비교해 본 결과<표 4-1>, 일상생활태도가 부정적일수록($p<0.001$), 여학생의 경우($p<0.001$), 교사-학생 촉진적 인간관계 지각($p<0.001$) 및 수업풍토 지각이 부정적일수록($p<0.001$),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p<0.001$), 급우생활태도 지각이 부정적일수록($p<0.001$), 학교생활태도가 부정적일수록($p<0.001$), 경제수준이 좋지 않을수록($p<0.001$), 가족기능지수가 부정적일수록($p<0.05$), 건강증진 생활습관이 좋지 않을수록($p<0.05$) 등의 순으로 학교에만 오면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환경, 사회환경, 성적수준, 가정생활만족도 등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표 4-1>.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인 경우와 일상 생활태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학교에서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 증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적환경 다음으로는 다른 어떤 외적환경 요인보다도 교사-학생 촉진적 인간관계가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업풍토 지각, 학교생활만족도 순으로 학교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연구결과 고찰

대부분의 학교교육에 관한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학교환경이나 교사-학생 인간관계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다.(Stipek, 1999, p211-216) 주로 교사에 초점을 두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더욱이 학교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연구한 것이 거의 없었다. 단편적인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동기유발 및 정서문제에 초점을 두고 몇 개의 하부요인들과의 상관관계로 유추하는 연구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간과해 버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이성진, 1996, p161; 김형태, 1999, p234-235, p399-410) 또한 통계방법에서도, 주로 상관관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단순히 두 연속형 변수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데 불과하다. 하나의 변수로부터 다른 변수 값을 예측 하고자 할 때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환경과 학교에만

(표 4-1)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환경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과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구 분		학교에 오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학교에 오면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		
		B	표준화 Beta	p	B	표준화 Beta	p
학교환경							
-교사-학생 촉진적 인간관계		.0836	.083 ④	***	.088	.088 ③	***
-급우생활태도		.013	.013		.080	.080 ⑥	***
-수업풍토		.058	.058 ⑥	**	.083	.083 ④	***
-교사풍토		-.021	-.021		.002	.002	
-학교생활만족도		.040	.040 ⑦	*	.075	.075 ⑤	***
기타 환경요인							
가정환경							
-가족기능지수		.027	.027		.043	.042 ⑨	*
-가정생활만족도		.003	.003		.028	.028	
사회환경							
-절친한친구관계		.011	.011		.008	.008	
-교사에 대한 풍토지각		.029	.029		.017	.017	
개인환경							
-건강증진 생활습관		.028	.028		.041	.041	*
-학교생활태도		.096	.096 ③	***	.067	.067 ⑦	***
-일상생활태도		.197	.197 ②	***	.280	.280 ①	***
-성적수준		-.005	-.004		.025	.022	
경제수준		.082	.063 ⑤	***	.057	.044 ⑧	*
남녀	여학생	.471	.235 ①	***	.264	.131 ②	***
학년	2학년	-9.248 E-04	-4.612 E-04		-.008	-.004	
출생순위	가운데	-.006	-.002		.063	.018	
첫째,가운데, 막내,외동	막내	.007	.003		.035	.017	
	외동	.014	.003		-.020	-.005	
아버지 학력 대졸,고졸,중졸, 국졸	고졸	-.070	-.035		-.077	-.038	
	중졸	-.074	-.022		-.120	-.036	
	국졸	.057	.010		.125	.023	
어머니 학력	고졸	-.051	-.025		-.018	-.009	
	중졸	-.039	-.015		.030	.012	
	국졸	-.055	-.012		-.095	-.021	
학교계열 인문,실업	실업계	-.082	-.035		-.052	-.022	
(Constant)		-.361		***	-.319		***
R2			.17166			.239	
F			23.60914			35.681	
D			***			***	

원문자는 표준화된 β 값의 크기 순서를 나타냄. * p<0.05 ** p<0.01 ***p<0.001 (무응답 제외)

오면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증상과의 관련요인 분석을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요인(환경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표준화된 β 값을 비교한 결과 가정환경이나 성적수준, 경제수준보다 학교환경 지각수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Johnson, Johnson(1993)은 학교생활이 학생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학급,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학교활동이나, 학업성취도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전반적으로 학교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에만 오면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증상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환경의 거의 모든 변수(교사-학생 촉진적 인간관계, 수업풍토, 학교생활만족도, 급우생활태도)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증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석환(1991)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 모두 가정병리나 사회병리보다 학교병리와 가장 큰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이 결과 가정환경이 가장 큰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결과로 현재 학교교육의 구조적 병리가 학생들의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 모두 인간관계의 병리와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시험 평가가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이갑수, 1991; 이명숙, 1990; 이상수, 1989; 황정규, 1990)을 깨뜨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OVA를 통해서 성적수준별로

건강수준을 살펴보았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표 3-1>, 여러 요인을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표 4-1>. 이것은 단편적인 변수를 사용한 연구에서의 단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교사-학생 촉진적 인간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Tolar(1975)는 교사는 학생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교사의 언행으로 학생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Rogers의 인간중심상담 기법 원리(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진실성)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 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고, 조건 없이 존중해 주는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로부터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인간관계가 더욱 촉진된다(Rogers, 1951). 여러 가지 긍정적 행동뿐만 아니라 학습은 교사의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태도에 의해서 촉진된다(김성일, 1993). 공감적 이해도가 높은 교사로부터 배운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결석 횟수가 감소되고, 긍정적 자아개념의 점수도 높고, 훈육상의 문제가 적으며, 누가적인 효과로 공감수준이 높은 교사와의 생활이 길수록 학생들이 얻는 이득은 많은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박성희, 1994, p194-197) 또한 학습태도(강효숙, 1991), 학습동기(조광규, 1997)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Roeser, Eccles(1998)는 중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지각과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초에서 인구학적 변수, 선수학업 성취능력, 적응수준 등을 측정된 후에 중학교 2학년말에

학업 성취도와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측정 한 결과, 교사가 학생을 긍정적으로 존중하고, 학교에서 개별지도 하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도록 강조하는 경우에는 학업의 가치, 학업 수행,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아지고, 우울 증상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이 지각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존중은 분노(anger)와 무단결석이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경쟁을 강조하고, 능력별로 다르게 학생을 취급한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가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가 감소하고, 무단결석, 분노,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학교환경 중에서 교사-학생 촉진적 인간관계 지각수준 및 수업풍토에 대한 지각 또한 교사와 관련된 요인으로 건강과 관련된 유의한 영향요인이라는 결과로 비추어볼 때 학교환경 중에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수업풍토는 수업진도, 학생의 경쟁적 분위기, 학생의 성적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진행 방식 및 지도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교사-학생간의 촉진적 인간관계가 되지 못하고, 교사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거나 교사에 대한 존경도가 낮다는 것을 여러 연구(김영숙, 1992; 이영주, 1995, 황순필, 1998)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생활지도 및 상담, 지도방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보통 학습활동에 주력해 왔고, 교과활동에 숙달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공식적인 조력관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Ryn, Heaney, 1997) 무엇보다도 교사의 촉진적 인간관계 형성과 바람직한 수업풍토 조성에 대해서

사범대학의 교과과정과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사-학생의 인간관계는 교사 일방의 행위만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및 기타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이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청소년 개인의 문제성향을 나타내는 내적환경인 개인환경은 투입된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태도는 선생님에 대한 반항, 비행성향, 공격성, 타 학생과의 불화, 주의집중력 부족, 과잉행동, 수업태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일상생활태도는 학업포기, 가출, 등교기피 등에 대한 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조기교정 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잘 나타내주고 있다.

VI. 연구결과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환경과 신체적·정신적 증상과의 관련요인을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인문계 14개, 실업계 4개 고등학교, 총 3,060명으로 남학생이 1,517명, 여학생은 1,543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미 신뢰도가 평가된 도구를 4회 사전 검토로 실용성을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구조화시킨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α = 0.95로 높은 수준이었다. 자료 수집기간은 1998년 11월 25일부

터 1998년 12월 13일까지였다.

연구분석 방법은 SPSS 통계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하여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①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회귀식이 유의하였다.($p < 0.001$)

② 학교에만 오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외적 환경요인 중에서 교사-학생 촉진적 인간관계, 수업풍토, 학교생활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③ 학교에만 오면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외적 환경요인 중에서 교사-학생 촉진적 인간관계, 수업풍토, 학교생활만족도, 급우생활태도 순으로 학교환경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표준화된 β 값 비교에서 외적환경인 학교환경보다 성별(여학생), 개인환경(일상생활태도 및 학교생활태도)이 부정적인 경우가 높은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학생간의 촉진적 인간관계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물론 청소년의 생활태도 교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제반 학교환경 요인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교사 자질 향상, 교육환경 개선, 교육정책 수립 및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효숙: 아동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자아개념

및 학습태도와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 권이중: 청소년학 개론, 신세대의 이해와 지도, 교육과학사, 1996

3. 김경숙, 임수영, 최창훈, 배철영, 신동학: 중학생에 있어서 학교생활 만족도와 가족기능 및 우울성향간의 상관관계, 가정의학회지, 제 15권, 제 6호, 1994, 363-368

4. 김문주: 우리 나라 학생들의 시험불안 진단을 위한 도구 개발 과정,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 2권, 제 1호, 1991, 32-42

5. 김선, 박보배, 박애선, 임선빈, 임혜숙: 심리학의 이해, 집문당, 1996

6. 김성일: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공감적 이해도 비교: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 6권, 제 2호, 1993, 58-94

7.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1995

8. 김영숙: 청소년 고독감과 대인관계 만족도 및 반응 행동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1992

9. 김윤진: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 지수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일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 10. 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2

11. 김형태: 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동문사, 1999

12. 남정자, 조맹제, 최은진: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13. 노희정: 국민학교 아동이 지각한 교사-아동간의 상호인간관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1991, 6

14. 문선도: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 제 4집, 1977

15. 문형춘, 김정옥: 신입생의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 31권, 제 1호, 1996, 55-71

16. 민경석: 위계적 자료 분석에서의 분석단위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6
17. 민영순: 교육심리학, 문음사, 1978
18. 박성숙: 학교의 심리적 환경 및 학업성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1992
19. 박성희: 공감, 공감적 이해, 원미사, 1994
20. 박연호: 교사와 인간관계론, 법문사, 1989
21. 서봉연, 이순형: 발달심리학, 중앙적성 출판사, 1983
22.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학생정신건강지도자료,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73100-81050-06-9417, 1994
23. 설기문: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학지사, 1997
24. 설석환: 교육의 병리현상과 학생의 신체 정신적 건강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1991
25. 오성삼, 구병두, 신기명: 교육심리학, 예지각, 1996
26. 원진숙, 박영주, 조태민, 강희철, 정의식: 가족기능도 지수와 우울, 불안점수, 피로도의 관계, 가정의학회지, 제 15권, 제 7호, 1994, 411-418
27. 윤종래: 교육의 병리현상과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 과학과 교육, 순천향대학교, 제 1집, 1993, 125-143
28. 윤진, 최정훈: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와 그 대처 행동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제 2권, 제 1호, 1989, 16-35
29. 이강수: 시험불안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국민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정전공, 석사학위논문, 1991
30. 이상노: 교수-학생의 인간관계에 관한 일 연구, 학생지도연구(경북대학교), 제1권, 제1호, 1968
31. 이상섭: 교육환경론, 형설출판사, 1991
32. 이상수: 부모의 관심도와 시험불안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1989
33. 이성진: 교육심리학서설, 교육과학사, 1996
34. 이영주: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지각 차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8
35. 이종각: 교육인류학의 탐색, 하우, 1996
36. 이현수: 건강심리학, 성원사, 1997
37. 이희용: 담임교사의 축진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8. 정기숙: 소년비행의 동향과 가족병리와의 관계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제 31권, 제 3호, 1993, 143-155
39. 정현숙, 정문자: 청소년의 긴장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 8권, 제 1호, 1995, 148-158
40. 조광규: 교사행동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학습동기 및 학습 성취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1997, 2
41. 조두영: 청소년 심리, 정신신체 의학, 제 6권, 제 2호, 1998, 97-103
42. 조수철: 시험불안의 개념과 이론,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 2권, 제 1호, 1991, 3-10
43. 조은숙: 정신위생, 법문사, 1992
44. 진용일: 교육심리학 신강, 동문사, 1993
45. 최미란: 조직체의 사회·심리적 환경지수의 연구방법과 3수준 다층모형의 적용,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2
46. 하중성, 여신정, 박세환, 김익, 신항순, 배철영, 신동학: 건강 위험 인자와 가족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조사. 가정의학회지, 제 14권, 제 10호, 1993, 647-652
47.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심리학, 서원, 1996
48.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청소년 심리학, 양

- 서원, 1998
49. 한준상: 학교 스트레스: 시험제도의 개혁,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50. 황순필: 고교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인간관계와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1998(2)
 51. 황정규: 한국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서울사대논총, 제 41집, 1990, 25-66
 52. 황혜정: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수용, 거부적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제 11권, 제 3호, 1997, 331-350
 53. Broome, A., Llewelyn, S.(Eds): Health Psychology, Process and Applications, Chapman & Hall, 2nd edi, 1995
 54. Cohen, L. H., Burt, C. E., Bjorck, J. P: Life stress adjustment: Effects of life events experienced by you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3, No. 4, 1987, 583-592
 55. Cohen, S., Willis, T. A.: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98, 1985, 310-357
 56. Comer, J. P.: All children can learn: A developmental approach, Holistic Education Review, 1993, Spring, 4-9
 57.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Whitbeck, L. B.: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Vol. 63, 1992, 526-541
 58. Cox, T.: Stress, coping, physical health. In Broome, A., Llewelyn, S.(Eds): Health Psychology, Process and Applications, Chapman & Hall, 2nd edi, 1995
 59.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m, A., Evans, E. G.: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63, 1992, 542-557
 60. Epstein, J. L., McPartland, J. M.: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the quality of school lif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13, 1976, 15-30
 61. Fergusson, D., Lynsky, M. T.: Conduct problems in childhood and psychosocial outcomes in young adulthood: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Vol. 6, 1998, 2-18
 62. Friedman, H. S., Booth-Kewley, S.: The disease-prone personality: A meta-analytic view of the construct, American Psychologist, Vol. 42, 1987, 539-555
 63. Garrick, T., Ostrov, E., Offer, D.: Physical symptoms and self-image in a group of normal adolescents, Psychosomatics, Vol. 29, 1988, 73-80
 64. House, J. S.: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81
 65. House, J. S., Landis, K. R., Umberson, D.: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Vol. 241, 1988, 540-545
 66. Johnson, W. L., Johnson, A. M.: Validity of the quality of school life scale: A primary and second-order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53, 1993, 145-153
 67. Kann, L., Kolbe, L. J., Collins, J. L.(Eds):

- Measuring the health behavior of adolescents: The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and recent reports on high risk adolescents, *Public Health Reports*, Vol. 108, Suppl. 1, 1993, 1-67
68.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Lazarus, R. S.: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4, 1981, 1-39
69. Kasen, S., Cohen, P., Skodol, A. E., Johnson, J. G., Brook, J. S.: Influence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disorders on young adult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56, Washington, 1999(Oct.), 1529-1535
70. Lazarus, R. 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71. Loeber, R.: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Vol. 53, 1982, p1431-1446
72. Long, B. H.: Parental discord vs family structure: Effect of divorce on the self-esteem of daught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5, 1986, 19-27
73. Marta, E.: Parent-adolescent interactions and psychological risk in adolescents: An analysis of communication, support and gender, *Journal of Adolescence*, Vol. 20, 1997, 473-487
74. McAnanly, E.: School Phobia: The importance of prompt intervention, *JOSH*, Vol. 56, 1986, 433-436
75. Mechanic, D., Hansell, S.: Adolescent compet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assessed physic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8, 1987, 364-374
76. Patterson, C., Seligman, M. E. P., Vaillant, G. E.: Pessimistic explanatory style is a risk factor for physical illness: A Thirty-five 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5, 1988, 23-27
77. Patterson, C.: Explanatory style as a risk factor for illn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12, 1988, 119-132
78. Patterson, G. R., DeBaryshe, B. D., Ramsey, 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Vol. 44, 1989, 329-335
79. Pender, N.: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1996). 최명애, 이인숙 역: 건강증진과 간호실무, 현문사, 1998
80. Petersen, A. C., Hamburg. B. A.: Adolescence: A developmental approach to problems and psychopathology, *Behavior Therapy*, Vol. 17, 1986, 480-499
81. Purkey, W. W.: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0. 안범희 역: 자아개념과 교육, 문음사, 1990
82. Rayfield, A., Eyberg, S. M., Foote, R.: Revision of the Sutter-Eyberg Student Behavior, Inventory: Teacher ratings of conduct problem behavior, *Educational &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58, 1998, 88-98
83. Roeser, R. W., Eccles, J. S.: Adolescents'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Relation to

- longitudinal changes in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8, 1998, 123-158
84. Rogers, C. R.: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Mifflin, 1951.
85. Roth, D. L., Wiebe, D. J., Fillingim, R. B., Shay, K. A.: Life events, fitness, hardiness, and health: A simultaneous Analysis of Proposed stress-resistance effects, Vol. 57, 1989, 136-142
86. Ryn, M. V., Heaney, C. A.: Developing effective helping relationships in health education practice, *Health Education & Behavior*, Vol. 24, 1997, 683-702
87. Smilkstein, G.: The cycle of family function: A conceptual model for family medicine,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 11, 1980, 223-232
88. Smilkstein, G.: The Family APGAR: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 6, 1978, 1231-1239
89. Smilkstein, G.: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amily APGAR as a Test of Family Function,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 15, 1982, 303-311
90. Spence, A.: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임영식, 양동규(역): 학지사, 1998
91. Stipek, D.: Motivation to learn: From theory to practice, 3rd edi. 전성연, 최병연 공역: 학습동기, 학지사, 1999
92. Taylor, E., Chadwick, O., Heptinstall, E., Danckaerts, M.: Hyperactivity and Conduct Problems as Risk Factors for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ic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35, 1996, 1213-1226
93. Tolar, C. J.: The mental health of students-do teachers hurt or help?, *JOSH*, Vol. 14, 1975(Feb), 71-75
94. Wandel, F.: Macht die Schult Krank?. 권이중 역: 학교가 환자를 만드는가, 한국학술진흥재단번역총서, 1994
95. Watson, D., Pennebaker, J. W.: Health complaints, stress, and distress: Exploring the central role of negative effectivity, *Psychological Review*, Vol. 96, 1989, 234-254
96. Weinberg, M., Hiner, S. L., Tierney, W. M.: In support of hassles as a measure of stress in predicting health outcom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10, 1987, 19-31
97. WHO: The health of young people: A challenge and a promise, who, Geneva, 1993.
98. Woolston, J. I., Rosenthal, S. L., Riddle, M. A., Sparrow, S. S., Cicchetti, D., Simmerman L. D.: Childhood comorbidity of anxiety/affective disorders and behavior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28, 1989, 707-713

(Abstract)

A Study on Factors Related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School Environment and Physical · Mental Health

Young Mee Chang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research on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physical and mental symptom at school) in perceived school environment among adolescents.

The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by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random sampling. The 3,060 subjects were selected 18 schools. The duration for survey was for Nov. 25-Dec. 13, 1998. The reliability of Questionnaire was Cronbach's $\alpha=0.95$.

This study used Multiple regression through Factor Analysis in SPSS program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① All of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significant.($p<0.001$)
- ② Physical · Mental Health is related to gender, personal environment, and economic status.
- ③ Physical Health is related to perceived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therapeutic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lassroom climat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 ④ Mental Health is related to perceived school environment variables(therapeutic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lassroom climate, school life satisfaction, teachers' climate, and classmates' attitudes) among adolescents..

This study c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counseling, teacher in-service training, student teacher trai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and health policy.